

국정뉴스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북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강조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보호와 북핵 등 남북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대로 가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만이 있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 고강도 대책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8·2대책을 발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했고,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부동산 매입 여신규제와 양도세제 강화 등 전 방위적인 고강도 대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방위적 수요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켜 거래동결과 같은 수급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발표… 의료비 부담 논란 환자 비급여 ‘완전 해소’ 목표 건강보험 강화

정부는 8월 9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MRI, 초음파, 로봇수술, 상급병실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8%, 저소득층의 부담은 46%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중 일부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추가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14회 전국고교생토론대회 참가기

“서로 존중해 주는 토론문화의 소중함 다시 깨달아”

울산시 예선대회를 거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전국고교생토론대회 본선에 참여하게 됐다. 미래 희망이 법률가인 나에게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큰 흥미를 주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면서 토론대회 준비를 마쳤다.

본선대회 참가자들은 예선대회에서 겨뤘던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토론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내대회나 예선대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근거들을 제시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팀은 토론 예절

도, 논리력도, 전달력도 뛰어났다. 16강전과 8강전, 4강전을 치르면서 준비한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들었지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했다.

‘토론 예절’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며 토론에 임했고 각각의 발언 시간마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대한 말을 천천히, 발음을 분명히 하며 ‘논리’와 ‘전달’에 집중했다.

이렇게 우리 팀은 결승에 올랐고 결승전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심장은 빨리

뛰고 손에 땀이 차며 다리가 떨리기까지 했지만 그러면서도 미소와 진지함으로 이겨냈다.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느낀 점은 바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토론 예절이라는 것이다. 토론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태도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논리적인 태도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국회의장상인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대상을 받았으며 나는 영광스럽게도 베스트스피커상까지

수상하게 됐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뛰어난 토론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금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한국자유총연맹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나와 긴 시간 함께 토론을 준비했던 친구 서지, 우리와 토론을 했던 14개의 팀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심아윤 | 울산 현대청운고 2학년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